

만연하는 변이병독 영단묘약은 무엇인가 ?



[밍후이왕] 새로운 한차례 역병이 신속히 만연되고 있는데 델타 변이병독은 전염성이 천배를 초과한다. 현재 중국대륙 여러개 지방에서 잇따라 델타 변이병독이 발생해 본지방에 집중성 역병이 나타났다. 미국 마성의 한개 현, 79%의 병례는 모두 2차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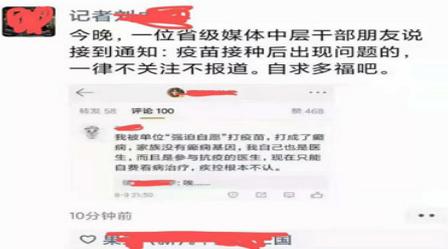
미국질병공제중심 (CDC) 주임은 백신은 델타 변이병독의 전파를 막을 수 없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하늘은 사람에게 늘 기회를 준다. 과학연구와 진실한 사례가 증명하다시피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 (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 이 파룬궁 ‘구자 진언’은 코로나병독을 치료하고 개선하는데 신기한 효과가 있다.

유럽 화교 병독학 전문가 둥위홍 (董宇紅) 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6건 무한 폐렴 환자가 개선된 사례를 수집하여 성심으로 파룬궁 ‘구자 진언 (九字真言)’을 념한 것에 관한 과학실증 연구 보고를 정리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36명 환자들의 전체개선률은 100%이다. 그중 26명은 (72%) 증상이 완쾌되고, 10명은 (28%) 개선됐다. 11명 중증 환자중 10명은 완쾌되고, 1명이 개선됐다. ICU에 입원한 중증환자 3명 중 2명은 완전히 회복됐고, 1명은 호전됐다.

청나라 유귀 (刘奎) 가 저작한 ‘송봉설역’ 중에서 “온역은 천지간의 사 (邪) 한 기로서, 사람의 몸에 바른기가 견고하면 사한 것이 간섭하지 못한다.”

고 제기됐다. 세인을 권고해 선을 향하고 덕을 중히 여기면 약물은 효과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구자 진언’을 경상적으로 념하면 사람을 고무해 사고하게 하고 새롭게 전통도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며, 마음이 ‘쩌싼런 (真善忍)’가치관을 향하게 한다. ‘구자 진언’은 우주 중의 순정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에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사람에게 선의 계발과 지혜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동시에 파룬궁이 중공의 모독박해를 당할때 사람들이 시비를 똑똑히 가르고 선량을 지지한다면 이것이 바로 가장 진귀한 일념이기에 곧 하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역병 추적 책임과 책임을 떠밀다



▲인터넷에 한 기자가 모멘트에 올린 글: 오늘 저녁, 한 성급 매체 중층간부 친구가 백신을 접종한다음 문제가 생기면 일체 무관주 무보도 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스스로 행운을 빌어요.

[밍후이왕] 현재 국내 역병이 확산되어 ‘제로화’도 소용없게 됐다. 각단위는 신종코로나 백신접종 100%를 요구했다.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 고려있어 자신의 안전을 고려한 대륙민중은 접종하지 않겠다고 했다. 직장 영도는 반드시 모병원에서 백신을 접종 불가 증명을 발급받아야지 아니면 교대하기 어렵다며 현재 규율검찰위원회에서 엄격한 검사를 한다고 말했다.

모 병원에서는 전문 “신종코로나 백신 접종 불가 증명” 소조팀을 설립하고, 책임자는 부원

장이다. 그는 부원장에게 본인의 체질은 백신 접종이 어렵기에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자 부원장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백신 접종 불가 조건은 이 몇가지인데 해당되지 않으면 발급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우리측에서 발급된 매 한장의 증명서는 반드시 규율검찰위원회 검사를 받아야 하고, 나는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했다.

“만약 내가 강제 접종 받고 문제라도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라고 묻자 그는 “현재 전국 아래위에서 모두 책임을 떠밉니다. 당신도 아는일이죠... (뒷면에 계속)

(1면의 계속) 우리병원은 접종만 책임집니다, 백신이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상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병원은 접종외에 책임지지 않고, 백신회사도 책임지지 않으며, 그들에게는 국가에서 부여한 특수시책 “면책”이란 보검이 있다. 각급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책임지지 않고 오

지 전민접종은 상급의 지령이라고 한다. 중공고위층도 책임지지 않고 “우리는 똑똑히 말했다. 백신 접종은 ‘자원’이기에 본인이 접종하려고 한 것이니 나를 찾지 마”라고 한다. 국가 질병공제중심에서도 책임지지 않고 “백신을 접종할 때 당신은 협의서에 서명했으니 당신은 ‘자원’이고 ‘상황을 요해’ 하기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

한바퀴 돌고 돌아서 발견했는데 결국에는 백신접종 이 일에서 기타사람은 모두 책임을 떠밀고, 진정으로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하는 것은 본인 뿐이라는 것을. 중공은 정치운동의 수법으로 역병을 대처하는데 결국 피해받는 것은 노백성 뿐이다.

한국 텔레비방송작가 자살하려던 데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인생,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김경일

[명후이왕] DJ 이자 PD, 예술통감과 방송작가였던 64세 김경일씨는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별이 빛나는 밤에’, ‘배철수의 음악캠프’ 등 한국인이 라면 알 만한 간판 프로그램의 작가로 탄탄대로를 달렸지만, 인생의 화와 복은 무상하여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사업 실패로 몸과 마음에 병을 얻었고 세상을 떠나야겠다는 녀두가 나왔다

2011년 55세 때 30년간 몸담은 방송국을 나온 뒤 급격히 추락하기 시작했다. 연이은 사업 실패로 재산을 잃었고, 몸과 마음에 병을 얻었다. 당뇨, 부

정맥, 고혈압, 우울증, 공황장애, 심장혈관 이상으로 인공박동기 시술까지 받았다. 한 번에 함썩씩이나 되는 약을 먹었지만, 그렇게 몇 년이 가도 증세는 나아지지 않고,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약을 먹으며 버텨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매일 약으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이유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을 더 비참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세상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에 언젠가부터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죠.

우연히 마주친 파룬궁, 인생의 전환점

2019년 겨울, 김경일은 목표

가 없이 곁에 사람없듯이 서울 거리에서 걸었다. “걸으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했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일까.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훔쳤던 생각, 남한테 거짓말한 것, 흡독한 것, 생활상에서 마음대로 욕망에 따른 것... 죽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나 자신을 정리하고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머리를 숙이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걷다가 불시에 머리를 들었는데 우연히 연공을 하고 있는 파룬궁수련생을 만난 거예요. 신기하죠.” 파룬궁, 잊어버린 줄만 알았는데, 20년 만에 다시 눈앞에서 마주칠 줄은 몰랐다. 2001년 아는 선배가 돈을 갚은 대신 “중국에서 어렵게 구해온 대단히 귀한 것”이라며 건넨 것이 파룬궁 DVD였다. 하지만 한국어 더빙이 없어 더 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넣어둔 것이 전부였다. 뉴스에서 파룬궁 박해 소식을 들었지만, 또다시 일상에 묻혀 잊곤 했던 것이 파룬궁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연공하는 분에게 다가가 물었죠.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는데 몇 번의 기회를 놓쳤고, 오늘도 이렇게 다시 보게 되었는데 배우고 싶다고, 어떻게 배워야 할지 모르겠(뒷면에 계속)

(2면의 계속)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제게 책 한 권을 그냥 주시더라고요. ‘전법륜(轉法輪)’이었어요. 이번의 우연히 만난 파룬궁, 이기회는 김경일로 말하면 인생의 전환점으로 되었다.

‘전법륜(轉法輪)’을 읽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다

집에 돌아온 김경일은 밤새 모두 읽었다. 그는 “책을 읽으면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른다”면서, “내가 30년간 방송작가, 광고 음악 기획, 라디오 진행 등 전문적으로 글과 음악을 다뤄왔지만, ‘전법륜’ 같은 책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전법륜’은 단순히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지침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이치를 깨달게 하면서, 미지의 세계로 저를 인도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바로 컴퓨터 전원을 켜고, 파룬궁 홈페이지를 열었다. 연공 동작 설명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기 시작했다. 공법을 할 때 강대한 에너지를 느꼈는데, 그건 매우 놀라운 정도였다.

병증이 사라져서 의약진들 놀라다

금년 3월 김경일은 건강검진을 했다.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 모두 수치가 정상 범위 내로 돌아왔더군요. 제가 워낙 병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호사가 더 깜짝 놀랐죠. 어떻게 된 거냐고 묻더군요. 사실 수련하고 나서 제 몸은 느껴보지 못한 최상의 컨디션이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약을 끊었지만, 몸은 오히려 활력이 있었거든요.” 필요 없는 군살 7kg 빠지면서 체격은 20대 시절로 돌아왔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현재는 계단도 숨차지 않고 가볍게 오를 수 있고, 밥맛이 있고, 위장도 편안해졌으며, 원래는 공황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을 타지 못했지만, 얼마 전부터 버스도 탈 수 있었다. “물론 수련으로 몸이 좋아지긴 했지만, 병을 낫겠다는 생각으로 수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건강에 집착하는 마음을 탄연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서 그런지, 마음이 아주 단순해지더

군요. 그저 다른 욕심 다 버리고 수련하겠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김 씨는 “무엇보다 성격과 인생관이 바뀌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기를 당한 이후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내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기도 했고, 다혈질이고 직선적이었지만, 이제는 화도 내지 않고 부드러워졌고, 긍정적이고 착해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가족들이 먼저 느끼더군요. 성격이 많이 좋아졌다고들 합니다. 저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선후배들도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완전히 환골탈태했다고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파룬궁 수련 이야기를 주변에 알리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 자료를 모으고 있다. 그는 “미국에 있을 때 합법적으로 마약에 손대보기도 하고, 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며 제멋대로 살았던 제가 수련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적”이라며, “사부님께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라며, “남은 인생을 수련에 매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연변 박해 소식

길림성 연길시 칠순 파룬궁수련생 김덕준은 양로금을 차단당해 생활이 간고하다

[밍후이왕] 70여세 연길시 파룬궁수련생 김덕준(金德俊)은 2020년 7월부터 연길시 사회보험 사업관리국에 의해 양로금을 차단당했다. 사회보험국은 김 씨가 불법감금기간에 받은 양로금을 납부할때까지 양로금을 차단한다고 했다.

김 씨는 원 백산호텔 직원이 다. 신앙을 견지해 불법 징역형

9년을 선고받았고, 그의 아내는 고압하에 이혼기소를 했으며, 그가 옥살이를 끝내고 귀가했을때는 의거할 사람, 안신할 거처도 없었다. 아울러 양로금마저도 일년넘게 차단당해 생기를 유지하기 매우 어려울 지경이다.

금년 6월 김 씨는 연길시 사회보험국에 찾아갔지만 사찰과 고 씨 과장은 말했다. “감옥에 감금됐을때

받은 양로금과 잘못계산된 공령공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당신의 양로금은 취소됩니다. 당신은 저보를 신청할 수 있어 관찮겠지만 다른 곳은 저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상급의 결정입니다.”

생각해보라, 저보가 있다고 해도 세집비용도 지불하기 어려운데 생존할 수 있겠는가? 이는 사람의 기본 생존권리를 박탈한 것이 아닌가!

연길시 최군미(崔群美) 박해로 유리걸식하다

[밍후이왕] 작년 11월 1일, 최군미 등은 진상알릴때 납치된 후 당일 귀가했다. 그후 이란 파출소 등은 여러차례 최 씨 거처를 소란했고, 최 씨는 부득이 유리걸

식을 했다. 경찰은 여러번 그의 딸에게 전화해 그의 행방을 물었다. 금년 7월 19일, 오후 이란향진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자가 문을 두드려 그를 찾았으나 가족은 배합하지

않았다. 몇년전 그는 이란 파출소와 공안국 인원에게 납치되고 집수색을 당하면서 최 씨의 가족은 아주 큰 상처를 받았다. 그의 딸은 매일 겁에 질려하고, 남편은 속상해 당뇨병이 점점 악화됐다.

나와 천인척이 대법 중에서 이로움을 얻다

[명후이왕] 작년 가을 어느 날, 시골에 가서 자료를 배포하고 돌아오는 길에 큰누나를 보러 갔다. 큰누나는 이제 85세인데 1년 넘게 만나지 못했다. 큰누나는 나를 보자마자 “동생아, 왜 이제야 왔어?”라고 말해서 나는 깜짝 놀랐다. “큰누나, 왜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누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아니, 그저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지 뭐.”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다.

큰누나는 말했다. “작년에 네가 나에게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 (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가르쳐 준 후 매일 외웠단다. 낮에도 외우고 저녁에도 외우고, 잠 못 잘 때도 외우고, 어디가 불편해도 외우고, 속이 언짢을 때도 외우고, 어쨌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속으로 외우기만 하면 틀림없이 좋았단다. 지금 나는 배불리 먹고 잘 자고 머릿속이 비어 아무것도 없고 대법이 좋다는 것만 있단다. 지금 나는 몸이 활기차고 걸을 때 매우 가볍으며 정말 편안해. 아들 며느리도 나에게 잘하지. 예전에는 사흘이 멀다고 트집을 잡아 나와 싸웠는데 지금은 맛있는 것도 만들어 내게 가져다줘. 이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지. 아들도 변했어. 자주 나를 보러 오고 네 딸과 아이들도 하루가 멀다고 나를 보러 오는데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무엇이든 다 사주어서 지금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곧 휴에 묻힐 사람인데 도리어 복을

받을 줄이야. 이걸 ‘대법이 좋습니다’를 외워서 큰 덕을 본 거야.”

큰누나는 더 신기한 일도 있었다고 했다. “작년 어느 날, 세발자전거를 타고 둘째 딸네 집에 가는데, 맞은편에서 트랙터 한 대가 왔어. 나는 길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 그는 왼쪽으로 가야 맞는데 핸들이 고장 났는지 나를 향해 달려왔어. 나는 너무 다급해서 ‘파룬따파하오!’를 두 번 외웠는데 앞에서 ‘깍’하는 소리가 나고 트랙터가 급정거했지. 브레이크가 한쪽만 말을 들었는지 트랙터가 단번에 도로에 가로 놓이면서 멈춰서서. 당시 심장이 두근두근했는데 한참 지나서야 진정됐어.”

“또 한 번은 금방 설을 쇠고 아들이 돼지사료용 옥수수를 사왔어. 하차를 도와달라고 해서 거의 다 내렸는데 그만 허리를 빼끗했지.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점심 때 좀 쉬었더니 움직일 수 없었어. 움직이기만 하면 아파서 속으로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외웠지. 잠시 후 며느리가 와서 기도하라고 했어. 물론 나를 위해 그런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며느리가 배우는 걸 믿지 않아. 속으로 생각했지. ‘대법 사부님만 믿고 대법이 좋다는 것만 믿는다. 누가 뭐래도 안 믿어.’ 저녁에 꿈을 꿴는데 먼 데서 한 노인이 걸어왔어. 푸른색 고대 복장을 하고 자상하고 인자하게 생기셨던군. 내 침대 옆에 오더니 천천히 손을 내밀어 내 등에 살며시대더니 이제 괜찮다고 말하곤 사라졌지. 나



는 이 노인은 누구지? 내가 허리 아픈 건 어떻게 알았지? 생각하면서 천천히 몸을 뒤척여 봤더니 안 아팠어. 하나도 안 아팠는데, 아침에 일어나 움직여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 나왔어. 나는 단번에 알았어. 꿈에 나타난 노인이 바로 대법 사부님이시란 걸. 그 노인은 어쩜 이렇게 좋을까?”

큰누나는 말했다. “동생아, 오늘 아침 잘 왔어. 내가 돈을 좀 많이 줄 테니 대법사부님께 향을 좀 많이 올려드려. 나 대신 사부님께 인사드려. 사부님께서는 연속 두 번이나 내 목숨을 구해주셨어. 나는 대법 사부님께 너무 많은 것을 빚졌어. 네가 나 대신 이 소원을 들어줘!”

파룬따파는 신기하고 아름다우며 법력(法力)은 홍대함과 미세함 속에 널리 퍼져 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사례는 단지 대법의 위력이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작은 체현일 뿐이다. 대법은 인간세상에 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대법의 신기함과 아름다움은 사람들에게 반본귀진(返本歸真)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